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 '해행당' 개관

9월 26일 경내에 체험관 개관
"지역주민 힐링소로 거듭나길"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 '해행당' 개관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가 템플스테이체험관 '해행당'의 불사를 마쳐 9월 26일 경내서 개관식을 열었다.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 해행당은 총면적 연건평 492.91㎡(약 150평) 규모로 1층은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대방 1개와 다실, 사무실, 방사 2개, 기타 서비스실이 있으며 전통한옥인 2층은 숙박동으로 특별실 2개, 일반객실 3개, 기타 사무실, 화장실과 서비스실로 구성됐다.

해행당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한국불교 전통 사찰과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산사에서 한국문화의 진면목을 느끼고 창원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한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문화사업단, 문체부, 경남도, 창원시 등 해행당 건립에 힘써주신 관계기관들에 감사드린다"며 "성주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기 와서 마음을 열어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열린 도량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사무국장 대우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 개관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1700여 년 한국불교의 참된 가치를 느끼고 지친 심신을 치유함으로써 행복의 길을 걷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며 "성주사가 템플스테이의 대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찰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김영주 경제부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아픈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소중한 안식처를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 며 "앞으로 경남도는 전통 사찰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축사에서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의 개관은 우리 불교와 일반 대중과의 사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들과 창원시민들, 경남도민들을 위한 공공재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스님은 템플스테이체험관 시공사인 김용탁 ㈜소요 대표와 ㈜미추홀 건축사 사무소에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대우 스님,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 태고종경남종무부원장 성욱 스님,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 은하사 전주지 혜진 스님, 서해문도 원측 스님, 한가람문화재단 원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김명주 경남 경제부지사,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의장, 홍순영 성산구청장, 이상연 창원불교연합신도회장, 김이순 성주사 신도회장 및 불자들이 참석했다.

가을 오대산, 문화로 물든다

월정사, 10월 11~13일
'2024 오대산문화축전'
강원도 대표 축제 정착

올 가을 강원도 오대산이 문화로 장엄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 스님)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2024 오대산문화축전'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오대산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연결된 온 세상을 위한 기원'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축전은 전통 불교문화와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10월 11일 개막식과 더불어 진행되는 개막공연 '지구를 위한 기도(Prayer for our Earth)'에는 서도밴드와 가수 이은미가 참여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11일에 펼쳐질 '기원의 탑돌이'는 인류의 평화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발전, 미래세대를 기원하는 의미 깊은 행사로서 참가자들에게 희망과 힐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대산 승시에서는 전통 먹거리 장터와 플리 마켓, 버스킹 공연 등이 열리며,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축전은 단순한 문화행사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강원트리엔날레 특별전시에서는 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한 국내외 작가들의 설치작품을 선보이며, 김부오 작가의 오대산 월정사 20년 사진 특별전도 열려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를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오대산문화축전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행사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버스 무료 셔틀을 운행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린다. 셔틀버스는 축전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오대산을 오갈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이와 함께 축전 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운영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축전은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정사는 "이번 축전은 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에게 오대산의 전통문화와 기원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송광사, 제20회 금강산림대법회 입재식

9월 29일 경내 사자루서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은 9월 29일 경내 사자루에서 '제20회 금강산림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는 매년 가을 전국의 대덕스님들을 초청해 금강경에 대한 강좌를 여는 법회다. 올해는 송광사 수좌 현묵 스님 강의를 시작으로 전 율원장 도일 스님(10월 6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10월 13일), 송광사 회주 영진 스님(10월 20일), 홍법사 주지 법미 스님(10월 27일), 웅석사 주지 원통 스님(11월 3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11월 10일),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11월 17일)이 나서 강의한다.

무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여름 더위 속에서도 송광사 대중들은 어렵게 제방에서 정진했다"며 "금강산림대법회 회향 때까지 참석해 불퇴전의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동국사, 불·보살 조성불사 회향법회

10월 1일, 경내 대웅전서
3년 걸친 대작불사 회향



국내 유일 일본양식으로 조성된 사찰인 군산 동국사가 3년 여에 걸친 불·보살 조성 대작불사를 회향하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동국사(주지 재안 스님)는 10월 1일 경내 대웅전 아미타불·약사불·관세음보살·문수보살상 봉안식을 비롯해 아미타불·약사불·신중·관세음보살·지장보살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점안법회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신중작법, 삼화상청, 점안의식, 권공, 청법가, 법문, 화엄시식의 불교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동국사 주지 재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가여래삼존상 개금 및 감로탱화 점안법회를 시작으로 한 3년 여 간의 불사를 회향하게 됐다"며 "동국사 주지 소임을 맡겨주고 배려해주신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불사에 동참해준 불자, 신도들의 원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법문에서 "처음 불사에 동참할 때의 간절함과 신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지혜를 얻는 것이 스님들과 불자들이 지녀야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 스님은 "점안은 불보살상과 탱화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온 세상에 두루하길 바라는 것"이라며 "새로 모신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동국사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불모산 가을음악회

9월 28일 경내 특설무대서
"행복한 추억 많이 담아가길"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3회 동림 불모산 가을음악회'를 9월 28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사진〉

장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김종락 기타리스트의 '한자락의 기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참석내빈들의 인사말과 싱어송 라이터 디안, 4인조 밴드 BLSG 밴드 분리수거, 포크가수 안치환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음악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불모산 자락을 배경삼아 아름다운 풍경과 흥겨운 음악을 벗 삼아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따뜻한 가을날의 추억을 담았다.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음악회는 '추억'이라는 주제로 내가 살아온 그림자를 되돌아보고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며 "많은 분들이 음악회에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70회 백제문화제'서 영산재 봉행

공주시사암 · 공주시불자연
9월 30일 금강 신관공원서



제70회를 맞은 백제문화제에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영가를 천도하는 '영산재'가 봉행됐다.〈사진〉

공주시사암연합회(회장 천산 스님, 갑사 주지)와 공주시불자연합회(회장 이종직)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를 9월 30일 공주 신관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설행했다. 이번 행사는 '제70회 백제문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천산 스님은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시던 모습을 상징화해 부처님의 높은 덕을 찬탄하는 의식이자 종합예술"이라며 "이번 영산재를 계기로 모든 것들을 내 몸같이 여기면서 상생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불교聯, 성거사지 5층석탑 다례재

9월 26일, 영산재 · 차 공양 등



빛고을 광주를 1000년간 비호한 성거사지5층석탑의 공덕을 찬탄하고 지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다례재가 개최됐다.〈사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9월 26일 광주공원의 성거사지5층석탑에서 '제4회 성거사지5층석탑 다례재 및 광주평안 기원대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고연합회장 소운 스님, 남구불교협의회장 동진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암스님들과 김병내 남구청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성거사지5층석탑이 10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기에 광주의 평안과 행복,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이런 탑이 우리 광주에 있음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직지 역해한 '마음의 노래' 울려퍼지다

9월 24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이 음악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왔다.

직지사상연구회(회장 덕산 스님 〈사진〉, 청주 혜은사 주지)가 9월 24일 흥덕사지 일원 청주 고인쇄박물관 마당에서 '직지 마음의 노래, 정신문화 꽃으로 피우다' 음악회를 개최했다.

공연에는 신이나, 현당, 서주경 등 11명의 가수가 직지에 담긴 노래를 부르며 직지의 우수성을 알렸다.

직지 마음의 노래는 △직등 지 △직지는 인류의 꽃 △미움도 성냄도 벗어놓고 △직지 아리랑 등 13곡을 USB에 담아 일반에 공개됐다.

덕산 스님은 "12년간 직지를 강의하며 문자로 알리고 싶었다. 방편으로 직지의 사상을 담아 노래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수진사,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일환



남양주 천마산 수진사는 2024년 12월까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진〉 이번 사업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218호 〈조상경〉을 중심으로 불교전통을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또 지역문화 활성화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행복한 꿈을 바라-바라무' '불교 전통무용 공연' '향기로운 불상 조상기' 등이 있다. 이중 '행복한 꿈을 바라-바라무' 프로그램은 불교 전통무용인 바라무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불교 전통무용 공연은 천수바라무 등 불교전통 의식 공연을 통해 불교문화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31-591-3364 노덕현 기자

무봉사, '밀양읍성 호국 산사음악회'

밀양출신 의열단 호국충정 기려



밀양 무봉사(주지 천주 스님)는 사명대상의 기일인 9월 28일 밀양읍성 영남루 마당에서 올해로 2회를 맞은 '밀양읍성 호국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충혼을 기렸다.〈사진〉

무봉사 주지 천주 스님은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끌어 왜군과 싸우면서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했다"며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했던 의열단 13명 중 5명이 밀양출신으로 밀양이 충혼의 고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